



■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연속토론회 1차 예고보도(2018.10.17.)

학종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.

- ▲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국회의원·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를 맡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중 1차 토론회를 10월 18일(목)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함.
- ▲ 1차 토론회는 ‘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’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.
- ▲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‘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 중심-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’은 현 정부의 교육공약 폐기임은 말할 것도 없고, 국가교육의 미래 관점에서 퇴행적 결정임. 또한 세계 선진국의 기업과 공교육의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후진적 결정임.
- ▲ 이 사태 핵심은 학생부 기록을 근간으로 하는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지만,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-100%로 확대하면, 교육은 오직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퇴행하여 국가와 교육의 미래는 없게 될 것이므로 그 역시 대안이 될 수 없음.
- ▲ 결국 길은 학종을 유지하되 개선하는 길이 될 것임. 더 이상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게 학생부 기록 및 학종 전형요소를 빠른 시일 내에 혁신해야 할 것임.
- ▲ 이번 토론회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임.

더불어민주당 김혜영 국회의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를 맡아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이 중에 1차 토론회가 10월 18일(목)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‘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’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

지난 8월 17일 교육부는 ‘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’을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제시된 대입 개편방안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이 문제인 정부의 교육공약 및 교육철학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. 문제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수능 절대평가는 폐기되고 대입 개편안은 상대평가 수능 정시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대입제도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. 전 세계가 국가시험과 내신 절대평가 기조 위에서 협업과 공감, 창의적 사고 등 미래 핵심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제 기업들조차 직원들 간의 협업 문화를 위해 인사 평가 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, 우리만 세계의 기업과 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.

이런 사태 원인은 여럿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학생부 기록을 근간으로 하는 학종 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입니다. 준비부담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전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학종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사태를 키워버렸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학종 비판론자들의 주장처럼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정시 비중을 80-100%로 확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. 만일 그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, 학교 교육은 5지 선다 객관식 시험 중심으로 회귀해서 우리 교육은 향후 10년 이상 깊은 수렁으로 빠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진보 보수 정부할 것 없이 여기까지 이 흐름을 이어온 것입니다.

결국 길은 학종 전형을 유지하되 개선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. 더 이상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게 고치고, 학교 교육의 혁신을 받아내는 기록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서, 이 전형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오도록 국가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특히 최근 벌어진 ‘S고 시험지 유출 의혹’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고교내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그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.

그런 의미에서 학종 전형을 어떻게 개선하고 내신 평가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얽혀져 있는 대입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학종 개선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종 비교과 영역의 획기적 개선을 주장하며, 앞으로 정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. 그 흐름에서 이번에 국회 및 민주연구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.

이번 토론회는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18. 10. 17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(공동대표 송인수, 윤지희)

※ 문의 :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분창(02-797-4044/내선번호 511)

- 행사명 :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
- 일 시 : 2018년 10월 18일(목) 오후 2시~5시
- 장 소 :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
- 주 관 :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국회의원, 민주연구원
- 주 최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
-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

일시	토론회명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좌장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발제 <input type="checkbox"/> 토론
1차 10/18(목) 오후 2시	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한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김혜영(국회의원/부산 연제구)
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구분창(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성대(신안산대 교수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조창완(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채송아(학부모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손종현(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)
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 범(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)
<input type="checkbox"/> 송근현(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)		